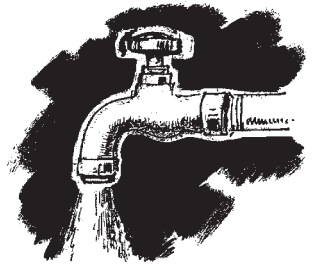


복무자의 심장



한 철 규

1

아침모임을 끝내고 자기 방으로 돌아오던 김영락원장은 소화기내과앞의 긴의자에 앉아있는 두사람을 띄어보자 걸음을 멈추었다. 면목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사람은 나이지숙한 채탄공이였고 다른 한사람은 전차깡 소대장의 안해였다.

그들은 원장이 다가오자 무등 반가와하며 자리에 서 일어나 꾸벅 인사들을 하였다.

맞인사를 하고난 김영락은 저이기 걱정스러운 어조로 녀인에게 말을 건네었다.

《어데 편치 않은 모양이군요?》

《예, 대장염이 왔는지...》 하고 녀인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에 집짓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이었다.

《머칠동안 약을 썼는데도... 그래서...》

《대장염이요?! 한 열흘전에도 대장염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좀 나아졌는데 이번엔 너무 심해서 못 견디겠군요.》

김영락은 녀인의 옆에 엉거주춤 서있는 채탄공에게 눈길을 돌렸다.

《동무는 어데 아파서 왔소?》

《전 간때문에... 그래서 담당선생님한테서 치료를 받자고 왔습니다.》

《간염이란 말이요?》

《예.》 하고 그는 갈린 목소리로 응대하고나서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며 기침을 짓었다.

《음- 그러니 모두들 장내세균성질병이구만.》

김영락은 낫색이 창백한 환자들을 런던의 정이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주머니네 집이 새마을동 45반이던가요?》

《예.》

그는 채탄공에게 물었다.

《동무도 같은 마을이지요?》

《그렇습니다.》

한순간 피뜩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머칠전에 병원에 찾아왔던 세명의 환자들도 세균성질병이었지. 가만, 그들도 이 사람들과 한마을에서 살지 않는가. 그렇다면... 전염인가? 공기? 물? 환자들과의 접촉? 여기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언제나 지성미를 풍기며 지혜롭게 빛나던 그의 두눈은 금시 가느다란 실눈이 되였고 길쭉한 얼굴에는 사색의 빛이 질게 어렸다. 다시 깊이 생각해 보니 최근 한달사이에만도 세균성질병을 호소하며 병원에 온 사람들이 이외에도 서너명은 더 되는듯 싶었다. 왜 이 문제에 낮을 돌리지 못했을까?

김영락은 주민들의 건강보호문제에서 놓치고있는 문제가 있다는것으로 하여 심한 자책감을 느끼였다.

환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자기를 눈여겨본다는 것도 잊고 그는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기였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빨리 대책을 취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며 그는 소화기내과의 문을 열었다.

젊은 의사가 위생복을 갈아입으며 치료준비를 서두르는것이 보이였다.

《선생, 이 환자들의 병상태를 알아보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선생이 맡고있는 새마을동에서 장내세균성질병을 앓고있는 환자들의 건강관리부를 내 방에 가져다주소.》

김영락은 고마움과 존경심이 어린 눈길로 자기를 쳐다보는 두 환자들의 등을 떠밀어 방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럼 치료를 잘 받으십시오.》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입원실로 향하는 김영락원장의 마음은 연추라도 매달린듯 자못 무거워났다.

입원환자들이 들어있는 매 방들에 일일이 들어가

방안온도도 가능해보고 수술자리는 어떤가, 식사는 제대로 하는가, 잠은 편안히 자는가 다심하게 물어 보며 환자들을 따스히 위로해주는 속에서도 김영락의 흐려진 마음은 좀처럼 개운해지지 않았다.

방안에 돌아오니 새마을동 담당의사가 놓고간 건강관리부들이 책상우에 놓여있었다.

그는 한장한장 번지며 주의깊게 들여다보았다. 5명 환자들은 한해전부터 주기적으로 세균성질병을 앓고있었다.

이건 분명히 전염이다. 스쳐지날수 없는 일이다. 마을에 직접 나가서 알아보자.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다. 일단 결심하면 조금도 주저없이 바람벽도 문이라 차고나가 끝장을 보고야마는것이 무진대란광병원 원장 김영락의 성격이었다.

그는 15분가량 부리나케 걸어 새마을동 입구에 있는 양수장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거기에서는 10여명의 녀인들이 물바게뜨며 물초롱들을 들고 서있었다.

김영락은 성큼성큼 그쪽으로 다가갔다.

한 녀인이 양수장앞에 고인 물을 바가지로 떠서 바게뜨에 담고있는데 그 주위에서 녀인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있었다. 그 물은 양수장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었다.

김영락의 머리속에 번개의 섬광과도 같은 강렬한 불꽃이 일었다.

저 물을 음료수로? 그렇다면 환자들이 생기는 원인은 물, 물에 있는것이 아닐까.

《아주머니들, 물을 꼭 끓여서 마시십시오. 꼭 그래야 합니다.》

김영락은 거듭거듭 녀인들에게 당부하고나서 걸음을 옮기었다.

그는 그길로 또 강안마을로 나갔다. 인민반장들도 만나보고 아는 사람들의 집에도 들러보았다. 강안마을은 무진대지구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 살고있는 곳이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거의 모두가 우물을 파고 줄짙을 박아 먹는물을 해결하고있었다. 그런 우물들이 무려 수십여개나 되었는데 그 우물들 가까이에는 사방으로 하수도가 있었다. 우물안의 물이 오염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것이었다.

원래 무진대지구에는 오래전부터 물정제, 물소독 설비까지 그뿐히 갖춘 수도화가 실현되어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 계속되는 가물로 하여 대동강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물량이 줄어들어 양수기를 원만히 돌릴수 없었다. 주민들은 물부족을 느끼자 경쟁적으로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질병이 발생하고있었던것이였다. 아니나다를까 인민반장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 인민반들에 대장염이나 간염, 파라티브스를 앓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것이였다.

그날 저녁 총화모임에 김영락은 이 문제를 상정 시켰였다.

강안마을을 담당한 의사의 보고에 의하면 세균성 질병환자가 6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병원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6명이라면 실지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더 많을거요. 웬만큼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한히 여기면서 집에서 약이나 먹고 그칠거란 말이요.》

그는 담당의사에게 물었다.

《선생, 세균성질병환자들이 끊기지 않고 자주 나오는 원인이 뭐라고 보오?》

담당의사는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거침없는 어조로 대답했다.

《요즘은 마가울이면서도 겨울에 들어서서 11월이어서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런 병에 걸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계절변화란 말이시.》 김영락은 머리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외에 다른 원인은 없겠소? 이를테면 물이라든가 혹은 위생상태라든가.》

《물론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근본원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담할수 있소? 인민들의 생명을 책임진 의사로서 담보할수 있는가 말이요?》

원장의 찌르는듯 한 말에 갑자기 담당의사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고개를 숙였다.

김영락은 목단추를 열어 목깃을 열어젖히고 손바닥으로 뒤목을 어루쓸었다. 안타깝고 서운한 생각이 밀물처럼 쓸어들었으나 선뜻 그를 추궁하게 되지 않는것이 질병원인이 물에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현재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자신에 대한 혐오와 자책때문이었다. 김영락의 가슴속은 천근바위라도 들어앉은듯 무거워났다.

그는 좌중에 무겁게 드리운 침목을 꺼치며 입을 열었다.

《우리 의료일군들의 임무를 단순히 찾아오는 환자들을 접수하고 치료해주는것만으로 인식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선생들은 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해주는것만도 힘에 부치는데 질병원인을 찾아 대책세우는 문제까지 어떻게 신경을 쓰겠는가고 생각할수 있는데 그렇게 인민들의 건강문제를 객관적으로, 면산바라보기식으로 대하면 안됩니다. 여기에는 우선 제 잘못이 큼니다.》

동무들!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입니다. 이걸 한시도 잊지 말고 꼭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기어이 대책을 세웁시다.》

김영락은 다음날 새마을과 강안마을의 물을 시료로 떠가지고 시위생방역소에 나갔다. 수질분석결과 표준수치에 이르지 못한 위생적으로 불결한 물이라는것이 판명되였다.

그날 저녁 김영락은 세포비서(당시)와 마주앉

았다.

《결정적으로 수질이 좋은 샘물원천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고 김영락은 단호하게 말하였다.

《설사 물원천을 찾았다고 해도 그다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지구들에 흘러들도록 자연흐름식수도공사를 해야지요.》

《우리 힘으로요?》

《그렇습니다. 우리 병원자체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두사람의 눈길이 허공에서 부딪치며 불꽃을 튀기었다.

세포비서의 얼굴에 한순간 놀라움과 의혹의 빛이 스치더니 이윽하여 한량없는 기대와 다함없는 선망의 빛이 비껴흘렀다.

《물론 우리 병원의 현재상태로써는 할수 있다는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많은 자재와 로력이 들것입니다. 작업조건도 제일 악조건이고 계절도 제일 추운 겨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벌려놓은 양어장건설, 남새온실건설도 힘든데 여기에다 수도공사까지 내밀자면 아마... 그러나 이 일은 할수 있는가, 할수 없는가를 논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하며 그것도 반드시 우리가 다 맡아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원장선생님.》 하고 세포비서는 확고한 결심이 력력히 어린 김영락의 얼굴을 보며 그의 손을 째 잡았다.

《정말 쉽지 않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난 지지합니다.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고맙습니다.》

두사람은 비장한 각오와 새로운 신심과 충만된 열정을 안고 서로서로 손을 마주잡았다.

다음날부터 김영락원장과 의사, 간호원들은 여가 시간에 물원천을 찾아 사방 돌아다니였다. 그러나 물원천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날 저녁무렵 김영락은 소아과의사와 함께 샘물원천을 찾아 목방산의 높은 곳에 위치한 약수골까지 올라갔다가 허탕을 치고 맥풀린 걸음으로 산을 내리였다.

산기슭에 위치한 어느 한 폐갱엿을 지나던 김영락은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갱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던것이다.

그 갱은 10여년전에 침수되어 지금은 쓰지 않는 갱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예나지금이나 조금도 줄지 않고 왕성하게 흘러나오고있었다.

《저 물을 음료수로 쓸수 없을가?》

김영락은 타는듯 한 기대와 호기심에 입술을 감뻐며 소아과의사를 바라보았다.

《에- 안됩니다.》 그는 대뜸 도리질을 하였다.

《저 물이 10년나마 저렇게 흘러나와도 사람들이 먹을 생각이나 합니까? 그리고 전차들과 사람

들이 드나들던 곳이어서 갱안이 아마 어지러울겁니다.》

《그건 리유가 못돼. 10년나마 흘렀으면 이제야 갱안의 어지러운것들을 씻어내고도 남지. 보라구, 물이 맑지 않나. 수질만 좋다면 앉은 자리에서 호박을 잡는셈이지.》

김영락은 제잡담 갱쪽으로 씩씩씩씩 걸어갔다. 갱앞에 이른 그는 바닥에 가득차서 흘러나오는 물을 두손으로 흘 떠서 후르륵 들이마셨다. 순간 쨍하니 가슴속이 열리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듯싶었다. 그는 두눈을 크게 뜨고 환성을 내질렀다.

《하- 물맛 좋다.》 하고 그는 또 한번 물을 떠서 마시였다.

《이거 대단하군. 보통물맛이 아니야. 선생도 와서 한번 맛보라구. 어서!》

김영락이 환희에 떠서 손짓하자 소아과의사가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스택스적 다가오더니 체법 엄엄한 어조로 시까슬렀다.

《원장선생님, 수질검사도 안해본 물을 그렇게 막 마셔도 일없겠습니까. 그러다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겠습니까.》

김영락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배탈은 무슨 배탈, 걱정말라구. 이 갱의 길이가 한 20리는 잘되지? 그러니 우리가 올라갔던 약수골과 련결될수도 있겠는데. 이게 혹시 약수골의 물이어서 이렇게 물맛이 유별한게 아닐가?》

어정정해서 물을 떠마셔보던 그가 《예, 정말 물맛이 좋습니다.》 하면서 얼굴에 호합진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래그래.》 김영락은 어린애처럼 좋아서 손뼉을 치며 신발을 벗고 성큼 물속에 들어섰다. 순간 차디찬 랭기가 온몸에 즐달음치면서 등골까지 오싹하게 했다.

《원장선생님, 물이 참니다. 감기들겠습니까. 이 추운 한겨울에 거기가 어디라구 들어갑니까?》

김영락은 소아과의사의 야단치는 소리는 들은듯만 등 하고 저벅저벅 물을 차며 갱안으로 들어갔다. 물은 영락의 허벅다리까지 잠그며 용용하게, 줄기차게 흘러나오고있었다. 다시 갱입구로 나온 김영락은 들뜬 목소리로 떠들었다.

《물량도 대단하구만. 마치 갱안에 강이 흐르는 것 같애. 이만한 량이면 시간당 수백㎥은 잘될거요. 우리 무진대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남겠어.》

김영락은 허리에 차고있던 물병을 꺼내들며 호기있게 소리쳤다.

《당장 이 물을 분석해봐야겠어. 당장!》

두사람은 가지고다니던 물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폐갱을 떠났다.

일단 하자고 결심한 일을 하지 못하면 오금이 싸 견디지 못하는 다혈질의 사나이인 김영락은 그날 저녁 밥숟가락을 놓기 바쁘게 자전거에 올라갔

아 70리길을 달리였다. 밤중으로 위생방역소에 나가서 대기하고있다가 아침 첫 시간에 분석해볼 생각이였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방역소에 도착한 김영락은 온몸이 노그라들어 경비실에 앉은채로 말뚝잠에 들어버렸다.

다음날 오전 놀라울 정도로 희한한 물성분분석 결과가 나왔다. PH로부터 Ca, K, Mg, Na, 각종 탄산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성분들이 풍부히 함유되어있어 음료수로서는 아주 이상적이라는것이였다. 결국 막돌처럼 버림받던 폐갱의 물이 김영락의 손안에서 보석같은 샘물로 전환되였다.

그날 오후 김영락은 탄광초급당위원회를 찾았다. 김영락이 들고온 물성분분석표를 들여다보던 초급당비서(당시)는 매우 반가와하며 수도공사를 벌리겠다는 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열렬히 고무해주었다.

그리하여 병원사업총화모임에 자연흐름식수도공사문제가 상정되였다. 원장의 완강한 전격력과 드세찬 배짱, 비상한 일숨씨를 잘 알고있는 의사들과 종업원들은 공사완공의 가능성여부에 대해서는 애당초 생각지도 않았다. 우리 원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다 된다! 이것이 그들의 일치한 생각이였다. 그만큼 김영락원장에 대한 의사들과 종업원들의 신뢰와 믿음은 절대적인것이였다. 그러나 개중에는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우리 병원에 무슨 자금이 있어 그 많은 비닐배관을 해결하겠는가, 병원이야 치료사업이 기본이지 그런 큰 공사가 어디 우리가 할 일인가 하는 의견도 근심스레 울려나왔다.

김영락은 의사들과 종업원들을 믿음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우리가 맡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인민의 복무자들이기때문입니다. 이 공사를 단순히 인민들의 먹는물문제를 푸는 사업이라고만 보아서 안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것처럼 아끼시며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우리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활적인 문제,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격양된 감정과 의지로 달구어낸 류창하고도 열띤 음조로 휘몰아치는듯 열변을 토하는 원장의 웅골은 목소리가 도도하게 울리였다.

《속담에 누우면 산봉우리요, 일어서면 평마루라고 했습니다. 안된다는 생각,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기 전에 무조건 하자, 시작하면 끝이 보인다, 이런 관점과 각오를 가지고 펼쳐일어납시다.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 5시간이 우리에게 차례지는 작업시간입니다. 동무들! 우리모두 병원의 현대화공사를 벌리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분발하여 인민들의 건강문제, 음료수문제를 기어이 해

결합시다.》

김영락은 열정적으로 주먹을 흔들며 불똥어리같은 말을 마치고였다. 하여 원장이하 의사, 종업원들은 본신임무의에 자연흐름식수도공사라는 막중한 짐을 어깨우에 더 얹고 찬눈이 내리고 눈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날에 의지의 대결전을 벌리게 되였다.

2

저녁상을 물리고 텔레비존앞에 마주앉은 김영락은 무거운 생각에 잠겨있었다. 지금 그는 안해에게 어떻게 힘든 말을 꺼내겠는가 생각하고있었다.

자금, 자금이 절려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자금이 당장 어데서 난단 말인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김영락이 항상 찾게 되는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안해의 너그럽고 따뜻한 손길이였다.

잠시후 방으로 들어서던 안해 김금실은 런거퍼담배를 물고 뻑뻑 빨고있는 남편을 보더니 기겁한 소리를 질렀다.

《아니 여보, 무슨 담배를 이렇게 피워요. 별로 즐기지도 않는 담배를 런속 피우는걸 보니 또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군요.》

얼굴이 동그스름한 김금실은 자못 걱정스러운 낮빛으로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여보, 여기 와 좀 앉소.》 하고 김영락은 가볍게 손짓하고나서 절반나마 피우던 담배를 재털이에 북북 비벼 꺼버리였다.

안해가 다가와 앉자 김영락은 힘들게 말을 떼었다.

《내 오늘 당신한테 또 미안한 부락을 해야겠소.》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재면서 그래요?》

《당신하고 30년나마 살아오면서 내내 고생만 시켜 미안하오. 정말... 힘들 때마다 당신의 손을 바라보게 되는구만. 이 못난 남편을... 리해해주오.》

《당신 오늘 무슨 일로 그렇게 풀이 죽었어요?》

김금실은 여느때없이 말을 갑자르고 주저주저하는 남편을 사뭇 신기하면서도 호기심어린 눈길로 여겨보았다.

《여보!》 하고 영락은 안해앞으로 버썩 다가왔다.

《당신이 건사해둔 그 자금 있지?》

《그 자금이라니요?》

《아, 런회를 시집보낼 때 쓰겠다고 저축해둔거 말이에요.》

《예- 거야 있지요. 그런데요?》

《그걸 내가 좀 써야겠소.》

김금실은 입을 항 벌리였다.

《그걸 쓴단 말이에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릴 해요?》

《여보!》 하고 김영락은 펄쩍 뛰다싶이하는 안

해의 손을 정답게 꼭 끌어잡았다.

《큰 공사를 하게 되는데 말이요…》 김영락은 그 자금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딱한 사정에 대하여 진지하게 설명하였다.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김금실은 숫구었던 어깨를 내려젓히며 가는 숨을 호— 하고 내뿔었다.

《5년전에 병원을 현대화할 때는 만딸이 시집 갈 때 쓸 자금을 내가더니 이번에는 또 막내딸것까지…》

김금실의 말은 사실이였다.

어느 한 보양소에서 소장으로 사업하던 김영락이 이곳 탄광병원 원장으로 조동된것은 주체 99(2010)년 4월이였다. 보양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린 경험과 솜씨를 가지고있는 김영락에게 있어서 그를 맞이한 병원의 실태는 너무나도 뒤떨어져있었다. 원래 병원은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있었는데 장파피해를 자주 입는 사정으로 목방산기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탄광에서 건물을 일떠세웠으나 내외부꾸러기, 주변정리, 의료설비를 갖추는 사업은 어디까지나 주인인 의료일꾼들의 몫이였다. 김영락은 우선 내외부를 일신시키는데 달라붙었다. 그러자니 수많은 건설자재들을 마련해야 했고 그를 위해 자금이 있어야 했다.

하여 자기 집의 자금을 내가게 되었다. 그 자금이란 김금실이 집안살림을 전혀 돌보지 않는 무정한 남편을 대신하여 땅을 갈고 고를 치고 집집승을 길러 한푼두푼 마련해놓은것이였다. 김금실은 돼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원호물자들을 인민군대에 보내는 속에서도 군사복무를 하는 만딸의 장래를 위해 조금씩 저축하였다. 그런 사연이 있는 자금을 꺼내줄 때 김금실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흔연히 웃으며 남편의 손에 자금을 안겨주었다.

김영락은 그때 모든것이 어려웠지만 끝끝내 병원을 훌륭하게 꾸려놓았으며 중배관이 설치된 렌트겐, 전진진단기, 중환자감시체계, 증류수기, 고압멸균기를 비롯한 중요의료설비들도 그쁘히 갖추어놓았다.

수많은 약품도 자체로 마련하여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해줌으로써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사회주의본태가 굳건한 병원이라고 찬탄의 목소리를 터치는 자랑찬 현실을 펼쳐놓았던것이다.

지나온 5년간의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안혜에게 김영락은 절절하게 말하였다.

《여보, 어찌겠소? 이렇게밖에 다른 방법이 없구만. 련회가 제대되자면 아직 한 1년은 있어야 할텐데 그때까지 당신이 좀더 수고를 해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있는 자금이라야 얼마 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생각이예요?》

《어떻게 하든 우리 힘으로 뚫고나가야지. 우리 병원 후방기지들의 잠재력도 동원하면서…》

김영락의 확신에 넘친 말에 김금실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하긴 당신이 하겠다고 나서서 언제 한번 물러선적이 있어요? 당신 좋을대로 하세요.》

《여보, 고맙소. 리해해줘서 정말 고맙소.》

김영락은 무한히 사려깊고 인정이 많으며 자기의 심정을 너그럽게 리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안혜가 너무도 고맙고 사랑스러워 뜨겁게 달아오른 김금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이튿날부터 김영락은 나머지 자금마련을 위해 뛰어다니였다.

김영락이 애써 노력한 결과 필요한 자금이 다 마련되었으며 며칠후에는 생산해놓은 비닐판을 가져가라는 소식이 날아왔다.

김영락은 탄광지배인이 마련해준 적재함이 긴 화물차를 타고 한 간호원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이 남흥에 가서 10m짜리 비닐판 350대를 적재함에 싣고 출발한것은 밤이 이슥해진 때였다. 그날따라 점심시간이 지나서부터 진눈까비가 구질구질 내리더니 오후에는 뭇잔 찬바람이 향방없이 불어치면서 대기를 푹푹 얼구어놓았다.

두시간가까이 달린 차는 새벽 1시경에 개천지경에 들어섰다. 차가 어느 한 고개를 넘어 내리막길을 달리고있을 때 김영락은 벨스레 들추면서 내려가는 화물차가 어떤지 빈차처럼 홀가분해진 느낌을 받았다. 차가 들출 때마다 수백개의 비닐판들이 털썩덜덜떨떨 들추는 소리가 났었는데 어떤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부지중 머리를 돌려 뒤창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온몸에 싸늘한 전율이 줄달음치는듯 하였다.

적재함에 쌓아놓은 비닐판이 얼마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차를 세우라!》

화물차가 뺑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다. 김영락은 운전칸에서 나는듯이 뛰어내려 적재함우에 올라갔다.

그는 적재함우에 망연자실하여 못박힌듯 서버렸다. 적재함에는 얼마 안되는 비닐판들이 있을뿐이였다. 그는 적재함에서 뛰어내려 고개우로 뛰어올라가며 전지불을 비쳐보았다. 하얀 비닐판들이 줄줄이 널려져있는것이 보였다.

그는 비닐판들이 널린 길을 따라 숨을 헐떡이며 달려갔다.

이 일을 어쩌면 중단 말인가. 귀한 자재를 한밤중에 령길에다 모래알처럼 뿌려놓다니… 아!

김영락은 너무도 안타까와 머리를 싸쥐었다.

남흥에서 떠날 때 그들은 비닐판들을 적재함에 실은 다음 바줄로 든든히 묶었었다. 그런데 진눈까비가 내리면서 바람까지 불어 얼어든 비닐판들이

차의 진동에 들추면서 미끌며떨어진 모양이었다.

그는 헬금씨금하며 비닐판들을 주어다 차에 싣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시간쯤 지났을 때 멀리에서 자동차 한대가 불빛을 내쫓으며 오고있는것이 보였다. 그 차가 길바닥에 널린 비닐판들을 사정없이 깔아몽겔것만 같은 위구심이 쇠조각처럼 영락의 가슴을 찢었다.

안된다. 그게 어떤 판들이라구. 어렵도 없다!

김영락은 자동차를 맞받아 총알처럼 내달렸다.

《세우라, 세우라-》 하고 그는 전지불로 원을 그리며 소리쳤다. 그런데 화물차는 웬일인지 멎었다가는 달려오고 달려오다가는 멎어서는것이였다. 그는 화물차가 50m쯤 다가왔을 때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김영락은 두눈을 부릅뜨고 달려오는 차의 불빛을 쏘아보았다.

5m, 3m... 《앗, 원장선생님-》 하고 웨치는 간호원의 부름소리가 들리는것과 동시에 차가 멎어섰다.

운전칸문이 벌썩 열리더니 《이건 뭐야?》 하는 격노한 목소리가 화살처럼 날아왔다. 뒤이어 날파람있게 생긴 새파랗게 젊은 운전사가 바람처럼 날아내렸다.

쇠망치같은 주먹을 쳐들고 당장 칠듯이 혼들어대던 운전사는 불빛에 드러난 상대가 나이지숙한 사람이라는것을 알아보았는지 차마 주먹질은 하지 못하고 승기가 나서 떠들어댔다.

《도대체 무슨 일ियो?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이?》

이때 숨이 턱에 닿아 달려온 간호원이 그들 사이에 날아들었다.

《운전사동지, 미안합니다. 이분은 우리 무진대 탄광병원 원장선생님입니다. 인민들의 먹는물문제 때문에 남흥에 가서 비닐판을 실어오셨는데...》

간호원은 숨이 차서 할썩할썩하며 황급히 사정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운전사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저 길바닥에 널린 비닐판이?》

《예, 그래서 우리 원장선생님이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차를 막아선것입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풀어진 운전사가 손을 뺄 내저었다.

《원장아바이도 참, 내 이럴줄 알고 길바닥에 널린 판들을 다 주어신고왔습시다.》

김영락은 운전사의 손을 덥석 틀어잡았다.

《그게 사실ियो? 운전사동무, 고맙소.》

김영락은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뺨 씻으며 웃음을 지었다.

《그 말 한마디면 답니까? 난 오늘 아바이때문에 수명이 십년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네 건강을 한생 책임져주지. 어떤가?》

《좋습니다. 자, 이제 판들을 옮겨실어야지요?》

《그러자구.》

그 일은 30분이 실히 걸려서야 끝났다.

먼저 발동을 건 젊은 운전사가 차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주었다.

《원장아바이, 주의해서 가십시오.》

《고맙네.》 하고 응대하며 김영락은 정답게 손을 흔들었다.

《내 운전사동무를 잊지 않겠소. 한번 우리 병원에 꼭 오라구.》

《알겠습니다-아.》

차는 지나가고 운전사의 목소리는 저 앞쪽에서 울려왔다.

김영락은 마중나온 의사들과 함께 떠났다. 아직은 어둠이 가서지지 않은 새벽 4시경이였다.

3

자연흐름식수도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었다. 그들은 폐갱의 10리구간의 밑바닥을 깨끗이 가셔내고 입구를 1m의 높이로 막아놓았다. 그리고 그앞에 집수탱크를 건설한 다음 제창 땅파기공사를 진행하였다. 주민지구들에 들어간 수도관을 물을 땅을 1m깊이로 파내야 했는데 그 거리는 무려 3 000여m에 달하였다. 김영락과 종업원들은 철야 전투를 벌리였다.

땅파기작업을 시작하여 닷새째 되는 날 밤이였다.

김영락원장은 소아과의사와 함께 구멍이에 들이 박힌 바위돌을 뽑아내고있었다. 땀살스럽게도 관을 묻어야 할 자리에 한아름이나 되는 큰 바위돌이 곰처럼 웅크리고 박혀있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도저히 빠져나오지 않았다. 돌의 밑부분에 지레대를 꽂아넣고 몇번씩이나 든장질을 해보았으나 조금씩 움썩거리기만 할뿐이였다. 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씨름질하는것을 보고 옆에서 땅을 파던 의사가 달려왔다.

《자, 변선생은 지레대를 잡소. 나와 주선생은 량옆에서 들어봅시다.》

김영락은 두사람이 자기 위치를 차지하자 바위돌 밑에 손을 깊숙이 밀어넣어 삐죽하니 두드러진 부분을 짹 잡은 다음 구멍을 쳤다.

《하나, 둘, 영-차!》

의사들도 원장의 구멍에 맞추어 함께 소리를 치면서 힘을 썼다. 그만에야 바위돌은 구멍이에서 움썩 빠져나왔다. 돌이 땅길면에 거의 올라왔다.

《자, 몸자세를 유지하면서 다시한번 용을 씹시다. 하나, 둘, 영차!》

영락은 폭발적으로 힘을 몰아주는 순간 허리가 지끈하는 느낌을 받으며 구멍이밖으로 돌을 힘껏 밀어던지였다. 그리고는 허리를 모로 비틀며 무릎

을 꺾고 구멍이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와 동시에 힘주어 든장질을 하던 변동무는 돌이 굴러 나가는 서슬에 지폐대를 불안고 앞으로 꼬꾸라졌으며 주동무는 뒤로 벌렁 나가넘어졌다.

성미가 쾌활한 변동무가 넘어진 몸을 제격 일으켜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더니 제풀에 우스운지 허허 하고 웃음을 터뜨리었다.

《그놈의 돌이 안 나오겠다고 뺨치더니 끝내 억대우같은 장정들을 자빠뜨려놓구야말았군. 예익, 이 고약한 놈같으니!》

그는 돌을 향해 짐짓 눈을 빨더니 어깨를 뒤로 젖히고 유쾌하게 웃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사색이 되어 원장에게로 달려갔다.

《원장선생님, 어데 다쳤습니까?》

구멍이안에서 굳어진듯 앉아 허리를 붙들고 모지름을 쓰던 김영락은 황황히 손을 내저었다.

《아, 팬찮소.》 하고 말하는 김영락의 이마에 식은 땀발이 내뿜쳐있었으며 사려문 입술사이에서는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있었다.

《또 허리병이 도지는것 같군요. 원장선생님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아야 하는건데… 참.》

그는 김영락을 부축여 구멍이밖으로 나와 옆에 피워놓은 모닥불가까이에 데려갔다.

김영락은 모닥불가에 앉아서 피땀겨 몸을 비틀었다. 둔중하고도 날카로운 허리아픔이 팔과 다리, 목으로 즐달음치듯 퍼져갔다.

원래 김영락은 허리병때문에 자주 신고해오고있었다.

오래동안 자동차를 몰면서 생긴 경추병과 허리병은 그가 보양소 소장으로 있을 때 현대화공사를 하면서 굶은일, 마른일 도맡아한것으로 하여 더욱더 심해져 척추가 심히 변형되기까지 하였었다. 그래서 삼질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일한 날이면 안해가 밤늦도록 김영락의 허리를 두드려주고 찜질을 해주었다.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앞장에서 술선모범을 보이며 필사의 의지로 자기를 이겨내고있는 김영락이었던것이다.

뒤늦게야 구멍이밖으로 나온 주동무가 영치에 묻은 흙을 털며 모닥불가에 다가왔다. 그는 허리를 싸쥐고 고통스러운 안색을 짓고있는 원장을 보자 두눈이 때꾼해서 소리쳤다.

《아니 원장선생님, 그렇게 허리병을 심하게 앓으면서 무거운 돌을 든단 말입니까?》 하고 그는 갑자기 격노한 목소리로 떠들었다.

《원장선생님, 계속 이렇게 우리 혼자서 공사를 불안고 고생을 하겠습니까? 도움을 좀 받으시다. 이게 어디 우리만 덕을 볼 일입니까? 탄광이나 동사무소에 제기해서 로력을 좀 내라고 합시다. 솔직한 말로 수도공사야 우리 병원이 할 일입니까?》

아마 주동무는 돌을 들어내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나넘어져 신경이 살아오르는데다가 원장이

아픔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니 참을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주선생!》 김영락은 엄한 목소리로 제지시키고나서 주동무의 얼굴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탄광에서 로력을 대주겠다는걸 내가 완강히 반대했소. 지금 많은 굴진공, 채탄공들이 년말전투를 하느라 낮에 밤을 이어 전투를 벌리고있소. 그래서 갱안에 지원을 들어가야 할 형편이요. 그런데 탄광에다 로력을 내라고 하다니 말이 되오?》

주동무는 잠시 말없이 땅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김영락은 그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올려놓았다.

《주선생, 힘들어도 이겨나가자구. 벌은 쏘아도 꿀은 달다고 했소. 지금은 힘들어도 완공하면 꼭 보람이 있을거요. 우리스스로 찾아하는 일인데 이만한 난관이야 각오해야지. 이자 선생이 고생이라고 했는데 이진 고생이 아니요. 하고싶어 하는 일, 가고싶어 가는 길은 더없는 긍지이고 보람이지. 우리야 인간생명의 기사들인데 이 심장이…》 하고 그는 싱긋 웃으며 주동무의 가슴을 툭 쳤다.

《이 심장이 뚫어야지. 정으로, 사랑으로 뜨겁게 뚫어야 한단 말이요.》

《원장선생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주동무가 자책에 잠겨 머리를 숙이였다.

《알았으면 됐소. 선생도 수고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언성을 좀 높인걸 량해해주오. 어찌됐소. 김영락이야 원래부터 그렇게 급한 사람인걸.… 허허.》

김영락은 기분이 좀 밝아지니 허리아픔도 좀 진정되는감을 느끼였다.

《또 돌격해봅시다.》

김영락이 허리를 붙들고 간신히 몸을 일으키는 순간 벗어놓은 외투주머니에서 손전화기의 호출신호음이 울리였다. 손전화기를 꺼내 현시판을 들여다보니 손춘녀의사였다.

《예, 김영락이 전화받습니다.》

《원장선생님, 급한 환자가 생겼습니다.》

몹시도 당황하고 초조해하는 목소리였다.

《이자 방금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3도화상입니다. 생명이 위급합니다.》

《뭐요?!》

김영락의 장미가 꿈틀 일어섰다.

《알겠소. 내 곧 가겠소.》

김영락은 변종호에게 작업조를 책임지고 계획된 작업량을 꼭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고나서 총총히 작업장을 떠났다.

그가 걸음을 다그쳐 병원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1차처치를 받고있었고 그 량옆에 두명의 간호원들이 있었다.

《사고가 난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소?》

《두시간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사고요?》

손춘녀의사가 자초지종 대답했다.

《환자는 40살난 가정부인으로서 세멘트공장 소성공입니다. 소성로상태를 감시하던중 뜻밖의 일로 선자리에서 화상을 당했답니다.》

《음-》 김영락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를 내려다보았다.

환자의 얼굴이며 팔, 다리가 꺼밋하게 타서 형체를 알아볼수 없게 되었다. 여러군데나 피부가 벗겨지고 찢그라들었으며 별경계 살이 드러난 부위에서는 진물이 흘러나오고있었다.

《원장선생님!》 손춘녀가 초조한 눈길로 원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두시간만 지나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현재 탈수가 오는데다가 중독증상까지 나타나고있습니다. 좀더 있으면 패혈(피가 썩는 현상)로 넘어갑니다. 빨리 도인민병원에 후송해야 합니다.》

《우리 병원의 힘으로는 안되겠소?》

《그건 안됩니다. 약은 있지만 피가 없지 않습니다. 도인민병원에 나가야 수혈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수술을 해야 합니다.》

《환자의 피형은 검사했소?》

《예, B형입니다.》

《B형이라, 이제 차를 타고 도병원으로 가는 동안에 환자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김영락의 얼굴에 단호하고 비장한 결심의 빛이 비끼었다.

《우리가 수술합니다. 피부이식수술은 내가 직접 하겠소.》

《예?! 우리 병원에서요?》

《그렇소. 우리 병원에서 합시다. 기어이 우리 힘으로 환자를 살려냅니다. 살려낼뿐만아니라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본분을 다 합시다. 자, 빨리 수술장으로!》

한번 결심하고 꺼내놓은 말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두는 법이 없는 원장의 성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손춘녀는 입술을 옥물고 입안에서 맴도는 말을 삼켜버리었다.

환자는 즉시 수술실침대우에 옮겨졌다. 수술장무원등에서 눈부신 백광이 쏟아져내렸다.

높이 매달린 약병에서 가느다란 비닐관을 따라 5프로포도당점적액이 한방울 또 한방울 환자의 몸에 흘러들었다.

김영락은 서슴없이 자기의 팔을 쭉 걸어올리었다.

《자 간호원동무, 내 피를 뽑소.》

《예?!》 간호원이 너무도 놀라와 어망결에 소리치며 주춤주춤 뒤걸음질쳤다.

《안됩니다.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한 원장선생님한테서 어떻게 피를 뽑습니까? 안됩니다.》

《그러지 마오. 이런데 쓰라고 이 원장의 심장이

있고 피가 있는거지. 안 그렇소, 응?》

《원장선생님.》 이번에는 손춘녀가 영락의 팔을 붙잡고 목메인 소리로 부르짖었다.

《안됩니다. 원장선생님의 나이에 피를 뽑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아직도 20대, 30대인줄 압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선생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떨쳐나설겁니다.》

《히히, 모르는 소리 마오. 그건 내가 잘 알지. 현재 B형은 나 하나란 말이요. 그러니 큰일이나 난 것처럼 떠들지 말구 어서 피를 뽑소. 어서!》

《안됩니다.》

《못하겠습니까.》

손춘녀와 간호원들은 완강하게 도리질하며 그를 만류해나섰다.

《자꾸 그러지 말라는데... 참!》

김영락의 얼굴에 일순 난처한 표정이 떠올랐다. 《더이상 시간을 끌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오. 한 인간의 생명이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소. 이때도 계속 그렇게 애를 먹이겠소? 응? 탈수가 심해서 점점 영양상태가 악화되고있는데 빨리 피를 넣어주어야 할게 아닌가. 자, 빨리 뽑소. 난 일없소. 내 몸이야 내가 잘 알지.》

《원장선생님!》

의사, 간호원들은 애원에 굶는 눈으로 원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두눈귀에 맑은 눈물방울이 맺혀 파르르 떨었다.

김영락은 그들을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한 눈빛으로 둘러보았다.

《우리 이 환자를 단순히 환자라고만 생각지 않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겠다고 하신 인민, 인민이라는것을 명심합니다. 우리 보건일군들의 정성이라는게 뭐겠소. 우리 원수님께서 자신의 살붙이처럼 귀히 여기시는 인민을 위해 이 심장을, 온몸을 다 바쳐 헌신하는 그런 뜨거운 정과 사랑이 아니겠소. 세멘트생산을 위해 애쓰던 한 녀성이 화상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는것을 아시면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소. 난 그걸 생각하면... 내 피가 이 환자의 몸에 자양분으로 흘러들어 소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난 더 바랄게 없소. 자, 어서!》

김영락은 손을 내밀었다.

《원장선생님!》

손춘녀와 간호원들의 얼굴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었다.

한 간호원이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잡고 영락의 팔에 조심스럽게 주사기를 꽂았다.

김영락의 몸에서 뽑은 뜨거운 피가 환자의 몸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손춘녀가 자기의 팔을 걸어 붙이고 나섰다.

《자, 내 피도 뽑으라구. 내 피가 O형이야.》

《?!》

김영락과 간호원들은 한순간 얼떠름한 표정으로 손춘녀를 얼없이 바라보았다.

《왜 그래요? 나이 예순이 된 로친이라구 나를 쭉 빼놓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구.》

《아, 손춘녀선생.》

김영락이 만류하려고 입을 열었으나 손춘녀는 더 말을 말라는듯 황황히 손사래질을 하였다.

《원장선생님, 내가 원장선생님보다 나이가 많다는거겠지요? 그건 이유가 못된답니다. 나이많은 사람의 피라고 해서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나도의사예요. 자, 어서 뽑으세요.》

손춘녀는 어찌할바를 몰라 안절부절하는 간호원에게 주사기를 쥐어주며 제압담 팔을 걸어올리었다.

하여 손춘녀도 피를 뽑게 되었다. 이렇게 수혈은 계속되었다. 미구하여 환자의 몸에 따뜻한 온기가 돌면서 숨소리가 고르로와지는것이 눈에 띄게 알리었다.

《됐소.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소.》

김영락은 해쓱해진 얼굴에 사뭇 흡족하여 즐거운 듯 함박꽃같은 웃음을 피워올렸다. 환자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가늠해보던 김영락은 정색해진 낯빛으로 단호히 말하였다.

《이제는 지체말고 피부이식수술을 해야겠소. 제일 험한 부위부터 뜯어내고 이식합시다.》

《?!》

《오늘 밤중으로 1차이식수술을 해야 하오. 좋기는 환자의 몸에서 떼어낸 피부가 제일 좋은데 그건 안될것 같구만.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하면 혹시 거부반응이 나타나 잘 붙지 않을수 있는데 그건 우리의 정성과 숨씨에 달린거요. 자, 내 피부부터 떼내야겠소.》

김영락은 무작정 바지를 벗고 허벅다리를 쭉 건어올리었다.

《원장선생님!》

간호원들이 김영락의 팔에 매달렸다.

《원장선생님의 피부는 그만둬시다. 우리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선생님의 피부가 아니라도 피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부터 피부를 떼내겠습니다.》

《동무들의 피부가 다 들어가는데 이 원장의 피부가 없으면 안되지. 이 김영락인 언젠가 동무들속에 함께 있어야 하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모든 일이 잘되거던. 자, 어서!》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입술을 짓씹으며 원장의 허벅다리에서 피부를 떼내었다.(2차, 3차피부이식수술때에도 김영락은 자기의 피부를 떼어냈다.)

김영락의 뒤를 이어 손춘녀와 간호원들도 자기들의 피부를 떼어냈다. 떼어낸 피부들은 즉시에 해당하는 기술적공정을 거쳐 환자의 몸에 이식되었다.

피수혈과 1차피부이식수술이 끝났을 때는 동터오는 새벽무렵이었다.

김영락원장과 의사, 간호원들의 소행은 다음날 아침에 온 병원의 의사, 종업원들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나이가 많은 원장선생도 피를 바치고 살을 바치는데 우리들이 피는 맞지 않아 못 바친다 해도 피부야 왜 못 바치겠는가고 하면서 너도나도 수술장으로 사태처럼 밀려들었다. 그리하여 병원에서 환자의 몸에 이식하여준 피부는 연 470cm²에 달하였다.

김영락의 안해 김금실도 남편과 함께 환자에게 불같은 진정을 쏟아부었다. 그는 하루 3~4번씩 환자의 구미에 맞는 갖가지 영양음식을 해가지고 환자에게 대접하였다. 환자가 입원해있는 140일동안 김금실은 수많은 돼지고기와 꿀, 닭곰, 오리곰을 환자에게 해먹이면서 사심없는 정을 기울이었다.

간호원들은 낮이나 밤이나 환자의 곁에서 병시중을 들면서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하였다. 환자를 안치시키는데 병원의 모든 의사, 간호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후 환자는 깨끗이 회복된 몸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우러러 삼가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며 뜨거운 걱정의 눈물을 흘리었다.

《아버이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불타는 심장으로 받들어 자기의 피와 살까지도 아낌없이 바쳐가며 눈물겨운 사랑과 정을 기울인 고마운 보건일군들이 있어 다 죽었던 제가 다시 소생하여 건강한 몸으로 일터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보건일군들을 키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석달후에 있을 일이었다. 아직은 눈보라가 몰아치며 대지를 얼구는 12월 중순이었다.

김영락은 피를 뽑아 쇠약해진 몸을 잠시도 돌볼새없이 억척같이 일해나갔다. 의사들의 치료사업에 대한 지도, 위생선전사업, 입원환자들에 대한 방문과 위로, 약초채취와 치료약제조, 의료설비점검, 남새온실확장공사와 양어장건설, 의사, 간호원, 로동자들과의 담화, 수시로 찾아드는 손님들과의 사업, 식당의 위생문화상태와 음식의 질을 높이는 문제, 의사들의 실력향상사업...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 일감들이 김영락의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수술환자들도 이틀이 멀다하게 때없이 찾아들었다. 그때마다 김영락은 하던 일을 뒤로 미루고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칼을 잡았다. 그토록 드바쁘기 그지없는 속에서도 김영락은 하루도 빠짐없이 수도화공사장에 나갔다.

추운 겨울날의 한밤중에 의사, 종업원들은 완강한 투쟁을 안고 백열전을 벌리었다.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땅파기공사와 수도관을 늘이는 작업, 집수탱크건설이 12월 28일까지 완료되었다.

수압시험을 하여 물을 통과시켜보았는데 성공적이었다. 새마을, 역전마을, 학교마을, 강안마을에 이르기까지 무진대지구의 거의 모든 주민지구들에 뻗어간 수도관에서 샘물이 쏟아져나왔다. 모든 마을들에서 일시에 환성이 터져올랐다. 김영락과 의사, 종업원들은 샘물을 받아들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웃음꽃, 이야기꽃을 피웠다.

하지만 완공의 기쁨은 때이른 것이었다.

다음날 그렇게도 잘 나오던 물이 갑자기 멎어버리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제는 깨끗한 샘물을 먹게 되었다고 기뻐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어수선한 실망의 그늘이 비끼었다.

이건 무슨 도깨비같은 갑툭끈인가? 그 많은 물이 다 어데로 새어버렸단 말인가? 김영락은 밤 9시경에 안해한테서 허리안마치료를 받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아연하여 외투도 걸치지 못한채 문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전지불을 밝히며 창황히 걸음을 다그쳐 새마을부터 강안마을까지 다 가보았다. 들은바 그대로 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또 폐경으로 갔다. 폐경과 물탱크를 연결한 두개의 철관도 이상이 없고 밸브에도 고장이 없었으며 침수탱크에도 물이 가득 차있었다. 마을들에 가지로 갈라 물을 보내주는 기본관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그는 판단하였다.

비닐관이 묻힌 자리를 따라 총총히 걸음을 옮기던 김영락은 길옆의 발이 전지불빛에 번들거리는 것을 보았다. 잔걸음을 놓아 물이 질펀히 고여있는 곳에 이른 그는 눈앞의 광경에 너무도 억이 막혀 경직된 사람처럼 굳어져버리었다.

분명 관을 묻은 곳에서 새어나오는듯싶은 물이 발고랑을 적시며 흘러넘치고있었다. 전지불로 주변을 비쳐보니 중량화물자동차의 바퀴자욱이 유묘하게 찍혀있었다. 탄을 실은 차들이 공교롭게도 이곳에서 어기다보니 길이 좁아 에둘면서 관이 묻힌 자리를 길다랗게 깔아뭉개면서 지나간 것이었다. 새어나온 물은 벌써 수도관이 묻힌 길고도 좁다란 구멍이를 100m나마 따라가면서 적셔놓고있었다.

김영락은 손전화기를 꺼내 시간을 보았다. 10분 전 10시! 밤이 깊어진 때였다.

그는 결연히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 밤중으로 터진 관을 들어내지 않으면 래일은 늦는다. 래일까지 기다린다면 적어도 500m의 구멍이는 저 물에 의하여 물량이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대공사를 해야 한다. 마른 땅을 파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완전히 감량이 된 흙을 퍼내는 일은 그야말로 간난신고

일 것이다. 물탱크의 물이 다 빠지면 이를! 아니, 절대로 기다릴 수 없다. 한시바빠 젖은 흙을 퍼내고 터진 관을 들어올려 구멍이밖으로 물이 빠지게 해야 한다. 그는 지체없이 손전화기의 주소록을 찾아 세포비서를 현시하였다. 호출건을 누르려던 김영락은 부지불식간에 허를 깨물고 주춤하였다. 망설이게 되었다. 지금쯤은 잠자리에 들었을 종업원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던 것이다.

어떻게 이 밤중에 사람들을 나오라고 한단 말인가! 이 엄동설한에 얼마나 수고한 사람들인가! 제대로 자지도 못해 눈에 피발이 서서도 부르르고 터갈라진 손으로 억척같이 땅을 판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나... 그는 그 무엇을 부정하려는듯 세차게 머리를 가로흔들었다. 민자, 언제나 말없이 성실하게 따라나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이런 정황을 알면 누구나가 다 발벗고나설 것이다.

김영락은 무척 힘들게 자못 괴로운 심정으로 호출건을 눌렀다.

그때로부터 30분후, 병원의 모든 의사, 종업원들이 삽과 소갱이, 바께쓰를 들고 뛰다싶이하면서 김영락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다. 파시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소문난 병원의료일군들의 장하고도 미더운 모습이었다.

김영락과 세포비서의 전투적인 선동과 호소에 이어 작업조가 편성되고 일시에 흙감탕을 퍼내기 위한 작업이 벌어졌다.

김영락은 종업원들과 함께 삽을 들고 부지런히 삽질을 하였다. 세뿔가랑 파제끼니 다음부터는 흙과 물이 뒤섞인 범벅탕이 나타났다.

발이 푹푹 빠지는 구멍이속에서 몸을 덜덜 떨며 나온 사람들은 모닥불가에 모여 몸을 녹이였다.

몸이 좀 녹자 김영락은 《자, 또 해봅시다.》하면서 성큼성큼 앞장서서 구멍이로 다가갔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밝은 기분에 인상이 좋은데 나이가 좀 많은 박동무는 인상을 찡그리고 우들 우들 떨고있었다. 어쩐지 차디찬 흙감탕속에 발을 들여놓기가 끔찍한 모양이었다. 자기의 량옆에 늘 어선 사람들을 훑어보던 김영락도 이 순간에는 으시시한 느낌을 털어버릴 수 없었다. 그는 아까 물이 터져나온것을 목격하던 두시간전부터 열이 더 오르면서 몸이 오싹오싹해나가는것을 강인히 참고있었다. 피를 뽑은 결과 자주 어지럼증이 오고 세차페나 피부를 때낸 자리는 곪아서 염증이 심하였으며 허리 아픔, 머리아픔에 미열까지 나니 김영락의 온몸은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졌던 것이다.

김영락은 나약해지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호되게 자신을 질책하였다.

기운을 내자, 내가 주저앉으면 사람들이 주저앉는다. 모두들 나의 얼굴을 쳐다보고있다. 나는 누구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한 가지라도 풀어드릴 일념으로 심장을 꿰이는 의료일

군이다.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한생을 살고저 하는 인간이다. 하기에 멈춰설 권리도, 쓰러질 권리도 없다. 일어나라, 용감하게 앞으로!

그는 그 어떤 뜨겁고도 격렬한것이 드세차게 자기를 떠박지르는데 한 느낌을 받으며 성큼 구멍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김영락의 다리가 차디찬 흙감탕속에 푹 빠져들어갔다. 쇠꼬챙이로 무수히 찢러대는것 같은 날카로운 아픔, 등끝까지 엄습하는듯 한 혹독한 랭기... 그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목방산에서 내리부는 찬바람이 양칼진 소리를 내지르며 영락의 온몸을 후려친다. 그는 헉 하고 찬바람을 들이키며 소랭이를 흙감탕속에 쿡 박았다. 흙과 물이 가득 담긴 소랭이를 힘을 주어 끄 하고 들어올려 구멍이밖으로 쏟아내버렸다.

원장의 뒤를 따라 의사들과 노동자들을 비롯한 간호원처녀들도 뛰어들었다. 그들은 필사의 의지로 얼어드는 몸을 이겨내며 한소랭이 또 한소랭이 흙감탕을 퍼냈다.

한시간 가까이 작업해서야 구멍이바닥의 하얀 비닐판이 드러났다.

김영락은 깨어져나간 부분을 로출시키려고 관우에 계발린 흙범벅을 뜯어냈다. 터진 부분으로 짐작되는 곳의 흙을 들어내는 순간이었다. 깨어진 비닐판조각이 들리는것과 동시에 웅하니 뚫린 구멍에서 갑자기 썩— 소리를 내며 물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뿜어져나온 물은 창졸간에 영락의 얼굴과 몸에 물벼락을 들썩였다. 그러나 그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물분수를 뿜어대는 수도관의 터진 부위를 두손으로 힘껏 들어 구멍이밖에 내놓았다. 드디어 물은 구멍이가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었다.

김영락의 온몸은 물참봉이 되어버렸다. 입고있는 외투며 바지, 속옷들이 화락하니 젖어 온통 흙감탕이 계발려있었다.

《원장선생님, 빨리 나오십시오. 그러다 감기들겠습니다.》

변동무가 야단을 치며 영락의 손을 잡아끌었다.

《어— 씨원하군. 이쯤해야 일하는것 같지. 허허.》

김영락은 온몸을 화들화들 떨면서도 짜장 아무렇지도 않다는듯 호방한 웃음을 터뜨리었다.

오늘 밤은 일단 그것으로 작업을 끝내기로 하였다. 밤 12시가 넘은데다가 모두들 몸이 얼고 옷이 젖어들어 일을 더는 계속할수가 없었다.

김영락이 열이 나고 떨리는 몸에 물이 푹뚝 떨어지는 옷을 입고 집으로 들어서자 안해 김금실이 너무도 억이 막혀 두눈을 동그랗게 치뜨며 지청구를 들이쳤다.

《아니, 이게 뭐예요? 이 추운 겨울날에 푹 젖은 옷을 입고 일한단 말이에요? 밤마다 앓음소리를 내면서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좀 봐가면서 일할게지...

당신 어쩔려구 그래요? 그러다가 쓰러지겠어요.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허허, 이 사람이 오늘은 어찌된건가. 여느때는 말이 없던 당신이 이렇게 수다스러워졌으니 말이요, 응?》

실지 그랬다. 김금실은 좀해서는 남편에게 그 어떤 지청구나 투정질을 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꾸준하게 남편의 사업을 리해해주고 떠받들어주었다.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의견도 없이 무작정 지지해주고 따라나섰던 안해였다.

김금실은 남편의 젖은 옷을 벗기고 새옷을 갈아입힌 다음 그에게 다가와 앉더니 성난 목소리로 말하였다.

《여보, 물이고 뭐고 다 그만두세요.》

《그건 또 무슨 왕청같은 소리요? 내 몸이야 원래부터 이런건데 뭘 그다지 새삼스럽게 그러오?》

《그래서가 아니예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못 견디겠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물이 나오지 않는다기에 걱정돼서 수도가에 나가보았지요 뭐. 그런데 물때문에 나왔는지 아낙네들 세명이 모여서있는데 수군거리는걸 들어보니 당신에 대한 험담이 아니겠어요.》

《허허, 험담까지야 뭐 했겠소?》

김금실은 안타깝다는듯 언성을 높였다.

《저렇게 무사태평이니 참. 그 사람들이 뭐라느 줄 알아요? 당신이 되지도 않을 수도공사를 벌려놓고 제 낫내기를 한다는거예요.》

《뭐라구?! 수도공사가 내 낫내기라구?》

김영락은 반사적으로 소리치며 우썩 어깨를 솟구었다. 온몸이 푸들푸들 떨렸다.

《음—》 그는 괴롭게 숨을 내그으며 불끈 주먹을 틀어쥐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럴수가 있어요?》

김금실은 눈물을 쏟으며 설분을 터뜨리었다.

《허허.》 하고 김영락은 치밀어오르는 분기를 털어버리려는듯 일부러 헉헉하게 웃었다.

《당신이 되게는 성났군. 여보, 그만하오. 한두사람이 말하는걸 가지고 뭘 그렇게 떠드오?》

《당신은 분하지도 않아요?》

김영락은 잠시 말없이 어둠이 발린 창문을 바라보다가 퍼그나 온후해진 목소리로 말을 떼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어쩐지 지나온 나날이 생각되는구만. 이전에 보양소 소장할 때도 처음엔 말들도 많았고 불평도 있었지. 아랫사람들을 들볶는다느니, 공명심이라느니... 물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누군들 괴롭지 않겠소. 그러나 난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소. 오히려 배가의 힘을 내서 더 억척같이 일했지. 그렇게 하자니 자신을 이겨내기가 참 고통스러웠소. 그때마다 나는 우리 가문에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덕을 생각하며 힘과 의지를 가득군 했소.»

김영락의 석침하면서도 웅글은 음성이 방안에 차분히 가라앉은 정적을 흔들며 울리었다.

《당신도 알다싶이 수십년전에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쁜 놈때문에 큰 불행을 당했소. 당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긴 단 한점의 그늘까지도 말끔히 가서주고 우리 10형제모두를 여러 중요단위와 공장, 기업소의 지배인, 부지배인, 원장으로 내세워주시는 하늘같은 믿음을 베풀어주셨소. 그 은혜를 정녕 잊을수 없어 나는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고 뛰고 또 뛰었소. 난 항상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어떻게 하면 우리 원수님을 더 잘 받아들여모시겠는가, 어떻게 하면 원수님께서 격정하시는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드리겠는가 오직 이 한생각뿐이요. 우리 원수님께서 걱정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란 뭐겠소? 인민을 위한 일! 바로 이것이지. 그래서 이번 수도공사도 서슴없이 말아나선것이 아니겠소.»

뜨거운 격정에 휩싸인 김금실의 두눈가에 맑은 눈물이 고여 자글자글 끓고있었다.

《여보, 우리 나약해질 때마다 우리 원수님을 생각합시다. 원수님께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된다,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이것이 우리의 좌우명이고 삶의 철칙이며 영원한 신념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몰라준다 해도 우리 원수님께서는 꼭 우리를 알아주시지요.»

《여보, 내가 그만 격한김에 실언을 했어요. 용서해줘요.»

《용서는 무슨, 당신의 수고가 정말 크오. 당신이 밀거름이 되고 밀뿌리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김영락이가 있을수 없지.»

《여보!》

김금실은 격한 부름을 터치었다.

김영락은 고열과 동통에 시달리는 몸으로 입술을 앙다물고 작업장에 나가서 흠탕을 퍼냈다. 종업원들은 우리가 다 말아해제킬레니 원장선생님은 집에 들어가서 안정하라고 거듭거듭 권유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김영락은 조금도 불려서지 않고 억척같은 기력과 식음줄 모르는 열정으로 꺾끗이 이겨나갔다.

김영락과 종업원들의 투쟁에 의하여 흠감탕을 퍼내는 작업은 드디어 완결되었다. 련이어 판을 접합하는 작업도 끝나고 물을 통과시키는 시험을 하게 되었다.

김영락은 터진 판을 이은 자리에 있었고 한사람은 폐갱앞의 발브에 있었으며 또 다른 네명의 의사들은 각 마을의 수도가에 있었다.

제일먼저 학교마을에 나가있는 의사로부터 물이 쏟아져나온다는 소식이 손전화로 날아들었다. 뒤이어 새마을, 강안마을... 마지막으로 역전마을에 가있는 의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원장선생님, 물이 나옵니다.»

《그래, 나온단 말이지?》

《예, 팔팔 소리치며 나오고있습니다. 손전화기를 수도가까이에 뒀으니 물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갑자기 김영락의 손전화기에서 썩- 썩- 하는 수도물소리가 귀맛 좋게 울려나왔다. 얼마나 정다운 물소리인가. 마치도 노래소리처럼 끝없이 정답게, 끝없이 즐거웁게 들려오는 물소리, 물소리.

《좋소. 좋아! 물소리가... 아주... 좋아.»

김영락은 흥미해지는 의식속에서 꿈속에서처럼 어렴풋이 물소리를 들으며 스프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완강한 의지의 힘으로 버티고 또 버티오던 김영락은 그리도 고대하던 물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만에야 의식을 잃고 작업장에 쓰러졌다.

의사들이 황황히 김영락을 업고 병원으로 내달리었다.

12월 30일 밤 11시 30분이었다.

다음날 아침일찌기 집을 나선 김영락은 새마을 수도가로 향하였다. 지난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구급치료를 받아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한 김영락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냥 신음소리를 내며 밤새도록 앓았다. 그렇게 불편한 몸임에도 그는 사람들이 수도물을 길어가는 모습을 보고싶었던것이다.

그는 수도가에서 50m쯤 되는 곳에 걸음을 멈추고 물을 길어가느라고 벽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보건일꾼들이 한겨울의 추운 날에 손발을 얼구며 노력하여 보내준 사연깊은 물을 인민들이 받아마시며 즐거운 웃음꽃을 피우는 모양을 바라볼 때의 그 환희와 긍지, 보람이란 실로 흐뭇하고 감미로운것이였다.

아, 얼마나 좋은가. 인민을 위해 일한다는것은 그 얼마나 보람넘친 일인가. 우리 원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김영락의 눈가에 맑고 뜨거운것이 스프르 땀물며 고여올랐다. 그 수정처럼 맑고 불처럼 뜨거운 눈물은 형언할수 없는 기쁨과 한없는 긍지로 달아오른 영락의 두볼을 적시며 점점이, 줄줄이 떨어져내리었다.

물을 길는 녀인들은 즐겁게 웃고 떠들며 이야기꽃을 피우고있었다.

《야, 물이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렴, 약수골에서 나오는 물인데 어련할라구. 이젠 우리 머느리의 병이 푹 떨어지게 됐어.»

《우리 무진대사람들한테 호박이 넝쿨채로 안겨졌지. 호호호.»

《정말 우리 병원원장이 쉽지 않은 일군이야.»

《병원도 얼마나 멋있게 꾸려놓았나. 입원환자들에겐 때끼 고기와 닭알, 물고기를 떨구지 않고 먹인다누만.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깨끗한 음료수까지 해결해주니...》

김영락은 녀인들의 진정넘친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올라 천천히 돌아섰다.

이때 누군가가 《원장선생!》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채탄공으로 일하다가 년로보장을 받은 로인이었다.

그는 로인이 다가오자 깍듯이 인사를 하였다.

《아바이도 물을 길러 나오셨습니까?》

《그래, 로친네가 나들이가고 없어서 내가 나왔네. 원장선생!》

로인은 다감한 심정으로 김영락의 손을 덥석 잡아 쥐었다. 《정말 고맙소. 이렇게 샘물까지 먹게 해주니 이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뭘 그러십니까.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뿐입니다.》

《예로부터 나무는 큰 나무덕을 못 보아도 사람은 큰사람덕을 본다고 하더니 정말 우리 무진대사람들이 원장선생의 덕을 크게 보는구만.》

《아바이, 무슨 말씀들... 이 원장덕이 아니라 제도를 잘 만난 덕입니다.》

《그래그래! 옳은 말이요. 제도를 잘 만난 덕이고 우리 원수님을 높이 모신 덕이지.》

이때 수도가에서 원장을 띄여본 녀인들이 저저마다 청높은 목소리로 인사들을 하였다.

《원장선생님, 물을 잘 먹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선생님!》

김영락은 뜨거운 걱정을 안고 그들에게 머리숙여 인사를 하였다.

그는 로인과 인사를 나누고 병원으로 향하였다.

멀어져가는 김영락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로인은 연신 머리를 끄덕이였다.

《참, 심장이 크고 뜨거운 사람이야. 아무렴, 우리 시대 일군의 심장인데 응당 그래야지.》

인민이 아파하고 인민이 바라는 일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며 뛰고 또 뛰는 인민의 복무자 무진대의 참된 의료일군 김영락, 그 어떤 칭찬도 보수도 바람이 없이 언제나 한모습으로 꾀꾀한 길을 가는 이 평범한 사람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 세워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본신헌명과업과 인민군대원호사업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면서 인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김영락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어 중요대회의 대표로도 불러주시고 선군시대 공로자로 높이 내세워주시는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한없이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을 받아안은 김영락은 더더욱 뜨거운 정과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을 가고 또 가고있다.